

국내뉴스

항우연, 통신해양기상위성 국내 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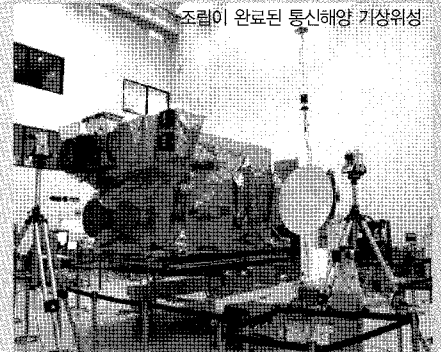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이주진·이하 항우연)은 지난 11월 26일, 오전 3시 통신해양기상위성을 프랑스 툴루즈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통신해양기상위성은 지난 2007년 3월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12월까지 위성의 총조립을 마쳤으며, 지난 2009년 10월까지 기능시험과 환경시험을 모두 마친 상태이다.

통신해양기상위성의 조립 및 시험을 위해 EADS Astrium사 직원이 지난 2년여간 항우연에 파견되어 항우연 연구원과 공동조립시험팀을 구성하였으며, 국내의 조립 및 시험시설을 활용하여 위성조립과 위성 기능시험, 발사환경시험과 우주환경시험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후 통신해양기상위성은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Astrium사로 이송하여 마지막 상능시험(추진계 고압시험 및 RF 적합성시험)을 수행한 후 2010년 3

월말 남미 기아나 쿠루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통신해양기상위성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 하에 2003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국립기상연구소 등과 함께 프랑스 Astrium사와 공동개발을 추진해 왔다. 통신해양기상 위성은 고도 36,000km의 정지궤도에서 향후 7년간 위성통신, 해양 및 기상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기상위성 운영을 통해 현재 일본으로부터 30분 간격으로 기상위성자료를 수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상시 15분 간격, 악기상시 최대 8분 간격의 관측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상감 시체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며, 그간 기상자료 수혜국 에서 제공국으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관측을 통해 해양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등의 효과적인 해양영토관리를 수행할



조립이 완료된 통신해양 기상위성

것으로 기대되며, 순수 국산기술로 개발된 통신탑재체의 우주인증과 공공 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세대 정보통신체계의 기반기술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을 통해 중대형 정지궤도위성 기술확보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의 위성 기술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1T, 국내 최초 형식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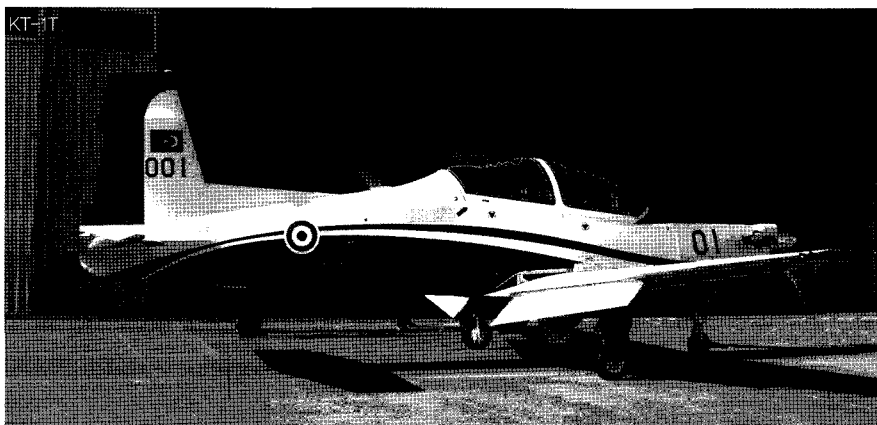
방위사업청이 KAI가 제출한 터키 수출형 KT-1T 형식인증(안)을 심의한 결과 감항인증기준(FAR part 23)을 충족하여 형식인증서를 발행했다. '형식인증'이란 지난 8월 1일부로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설계가 감항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국내 최초로 KT-1T가

받게 된 것이다.

KT-1T는 한국 공군이 운용중인 기본훈련기 KT-1에 터키 정부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동체 보강, 냉난방 시스템 개량, 조종석 계기시스템 디지털화 등 첨단 항공 시스템을 추가 반영하여 KAI가 자체 개발한 항공기, 금번 인증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약 330여개 항목을 포함한 총 821개의 항목에 대해서 14개월간 18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KAI는 2001년부터 2회에 걸쳐 수출한 KT-1 인도

네시아 수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5대를 추가 수출한 데 이어, 지난 2007년 8월 세계 유수의 회사들과 국제 경쟁을 통해 수출한 KT-1T의 비행안정성을 우리 정부로부터 인증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인증으로 KAI는 해외 고객들에게 항공기 개발능력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국산위계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수출가능성이 높은 초음속 고등훈련기(T-50)와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에 대한 감항인증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국내개발 군용항공기의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 방산물자교역 지원센터 개소

지식경제부가 KOTRA 내 범부처 조직으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15일 개소식을 열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KUH를 비롯하여 K9 자주포, K2 전차, T-50 등 수출유망품목을 자체생산할 정도로 발전했다. 특히 이

들 방산물자는 동급의 세계 어느 기종과 견주어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을 만큼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방산물자의 수출계약에 힘입어 방산물자 수출규모가 급증하는 등 방위산업은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UAE T-50 수주지원 실패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산물자는 우수한 성능만으로는 수출이 어려우며 정치·외교적 지원, 타 산업과 연계 등이 수출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러한 분야는 업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실제로 방위산업 선진국의 경우, 방산수출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에 따라 방산물자 수출의 활성화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시 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 센터는 방산물자 수출활성화를 위해 ①민수분야 절충교역, ②정부간 거래, ③패키지딜 협상안 작성 등을 지원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방산수출의 협상능력 강화를 통한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품원, 특수비행용 T-50B 최초생산 품질향상 간담회 개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항공센터가 지난 2009년 11월 26일 경남 사천 항공센터에서 특수비행용 T-50B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청, 공군, KAI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품원은 항공기 T-50B의 사업현황, 품질분석 및 정부 품질보증 방안을, KAI는 개조·개발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소요군의 운용측면 개선 제언사항을 생산현장에 환류 조치함으로써 초호기 품질 향상과 초기 품질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



었다. T-50B 공중공예기는 2007년 노후화되어 퇴역한 A-37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조·개발 중인 항공기로 2010년 전력화를 목표로 현재 기체에 주요 부품을 조립하고 시험비행 준비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항공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퍼스텍(주) 전용우 대표, 동탑산업훈장 및 분임조 대통령 금상 수상

초정밀분야 방위산업 전문업체 퍼스텍(대표 전용우)은 지난 12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 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성인 분임조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전 대표는 유공자 부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퍼스텍은 분임조 부문에서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저장가스통 모양을 변형시켜 불량을 조사 시간을 단축시키는 '저장기 내경 R기공개선법'을 발표해 금상을 받는 등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개선활동, 창조적 정신의 함양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체 및 유공자를 선정, 포상해 오고 있다. 전 대표는 "분임조 활동을 통해 목표치의 100% 이상을 넘어서는 개선 결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



아 첨단 방위산업체로써 경영환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I, 에비에이션 캠프 협약식 체결

KAI가 첨단 항공우주 분야의 지식과 경험, 공간을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습의 장으로 제공한다. KAI는 지난 12월 8일 사천시 본사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김홍경 사장, 한국과학창의재단 정 윤 이사장, (사)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김정구 대표, 학교 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KAI 에비에이션 캠프(KAI Aviation Camp) 운영 협약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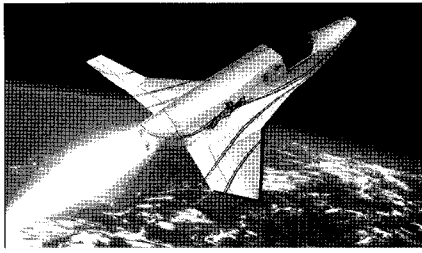
캠프는 KAI가 축적해 온 최첨단 항공우주 관련 지식·경험·공간을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의 장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KAI는 기초과학 교사들에게는 항공우주에 적용되는 수학과 과학 원리를 재구성한 교수법으로 실습 위주 연수를 시행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흥미와 공교육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AI는 내년 2월 전국의 수석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시범연수를 벌여 문제점을 보완한 뒤 8월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본격 연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예천천문우주센터, 민간유인우주선 도입추진

경북 예천에 소형 헬리콥터를 이용한 관광전용 항공사가 국내 최초로 설립되고 2013년 정기운항을 목표로 민간유인 우주선 도입이 추진된다. 예천천문우주센터는 지난 12월 18일 경북 북부지역 관광지와 문화재, 명소를 헬리콥터로 관광하는 항공사 설립 기념식을 가졌다.

천문우주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항공사 설립과 민간 유인우주선 도입 계약을 추진, 폴란드 PZL 스위드닉(Swidnik)사의 SW-4 헬기 1대를 구매해 항공



사(예천천문우주센터 항공우주사업본부)를 설립·운영할 계획으로 2010년 2월 2호기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천문우주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6만㎡ 규모의 헬기장을 조성하고 경북도립대학과 연계, 항공정비 전문인력을 활용해 북부지역을 거점으로 한 하늘관광 사업을 한다는 것. 이날 항공사 설립 기념식에는 미국 민간 유인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의 그리어슨(J. Greason) 회장 일행이 참석해 Lynx MK II 우주선 계약 체결식도 가졌다. 천문우주센터는 민간 유인우주선이 도입되면 관광비행 사업경험을 토대로 항공우주체험사업에도 참여해 3, 4일간 자상훈련을 받은 후 지구대기권을 벗어난 고도 115km 우주공간을 오가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주)모피언스, 항공용 항행안전무선장비 사우디 수출

(주)모피언스가 지난 11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에 15억원 규모의 항행안정장비를 수출했다. 전방향표지시설(DVOR)과 거리측정시설(DME) 등 2대 규모로 이 장비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의 알울라(Ah-Ula)공항에 설치될 예정이다. 1997년 설립한 (주)모피언스는 지난 2003년 전방향표지시설 개발에 착수, 이듬해 개발을 완료하고, 2005년 김해국제공항에 처음으로 제품을 납품했다. 현재 (주)모피언스가 개발한 항행안전무선장비들은 제주 항공무선표지소, 서울공항, 울진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모피언스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해외업체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부탄, 터키, 이란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 영업과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탄과 13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2009년 상반기까지 21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주)대한항공, B747-8 날개 구조물 공급 계약

(주)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사와 약 3억 달러 규모의 B747-8 차세대 항공기 날개구조물 공급 계약을 지난 10월 21일 맺었다. 대한항공이 B747-8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참여하는 부위는 주익연장날개(Wing Tip Extension), 날개 밑 유선형 구조물인 플랩 트랙 페어링(Flap Track Fairing), 날개 끝 구조물인 레이어드 팁(Raked Wing Tip) 등 3곳이다. 공급규모는 105대 분량으로 (주)대한항공은 본 계약에 앞서 지난 2007년 초부터 B747-8 항공기 날개 구조물의 공동개발사로 참여해 현재까지 6대분을 공급했다. 이날 조항진 (주)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은 “그동안 대한항공이 항공기 구조물 제작 부문에 있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항공기 제작 분야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화, KUH 개발성과 활용한 해외수출 물꼬 열어

(주)한화대표이사 남영선은 한국형 기동헬기(KUH) 개발을 위해 해외기술 협력관계를 맺어온 이태리 마이크로테크니카(Microtecnica)사와 지난 11월 5일(현지시간) 이태리 토리노에 위치한 마이크로테크니카(Microtecnica) 본사 사무실에서 항공기 및 헬기 부품 공급 관련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은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주)한화와 헬기 부품사업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공조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및 지식경제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한 항공산업의 본격적인 해외진출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번 계약을 통해 (주)한화는 약 1천만불 규모의 항공기/헬기 부품 3종을 마이크로테크니카(Microtecnica)사에 납품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화 기계항공사업부 이성택 전무와 이태리 마이크로테크니카(Microtecnica)사 앨런 빈(Mr. Alan Bean) 사장이 계약

서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또한 한국형 기동헬기 관련 해외 협력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업체의 항공관련 해외수출마케팅을 위해 주요 해외 협력업체를 방문 중 인 방위사업청 K-P 사업단 운영진 민군협력부장, 김홍민 사무관 등 8명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태리 마이크로테크니카(Microtecnica)사는 헬기를 포함한 항공용 유압시스템 부품 선진업체로서, 약 2년여에 걸쳐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추진 중인 KUH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한화의 품질과 기술력 그리고 가격경쟁력을 높이 평가하여 유럽 유수의 헬기 및 민항기 기종에 공급될 초정밀 항공부품을 이번에 (주)한화로부터 구매할 것을 결정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 이후 2010년 구제화 될 후속헬

기 개발사업을 준비중이며,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한화를 비롯한 항공관련 국내 업체들의 해외 협력 및 진출을 도와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주)한화는 앞으로도 방위사업청 및 지식경제부의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해외기술력 확대 및 수출확대를 추진할 예정이고 마이크로테크니카(Microtecnica)사와 동아시아 지역의 창정비사업(MRO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에 공동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